대구주보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2011. 10. 23.(가해) | 제752호 |

주일의 말씀

사랑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기

신종호 분도 신부
성가양로원장

우리는 사람이 존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사회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과연 그도 존엄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엄하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저 사람에게만은 예외야! 예외가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대답은 "그럼에도 그는 존엄하다." 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우리가, 또는 우리 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부르짖음을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탈출 22,26).

지난 주일의 복음이 생각납니다. 하느님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것' (마태 22,21)은 무엇보다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정말이지 한없는 연민과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서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진 인간은 하느님을 닮고 향할 수밖에 없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 드리는 다른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듣는 이야기, '사랑' 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듯이 사랑은 참으로 생명의 묘약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비단 남녀만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규정과 법과 규칙들 속에 살아가지만 역시 중요한 것,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국 이 "사랑" 이라는 대주제 앞에서 되돌아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으로 되돌아오라는 주님의 촉구에도 마음을 닫아 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율법학자처럼(마태 23,1~33 참조) 계명과 규정에 얽매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이 사랑에 충실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바로 하느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생명의 말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 참조)

제1독서 : 탈출 22,20-26 제2독서 : 1테살 1,5ㄴ-10 복음 : 마태 22,34-40.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가서 선포하여라

이 명령은 전례 거행, 특히 성찬례 거행 때마다 계속 되살아납니다. 성찬례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선포하여라."(마태 28,19 참조)하신 그 명령으로 끝납니다. 전례는 언제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파견입니다. 우리가 전례에서 체험한 것, 곧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구원의 힘을 세상에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 선포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선교 교령 2항). 복음 선포는 "교회의 고유한 은총이고 소명이며, 교회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4항). 따라서 교회는 결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장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밖으로 뻗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들에게 온전히 현존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줍니다(선교 교령 5항 참조).

모든 이의 공동 책임

세계 선교라는 보편 사명은 모든 이와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복음은 받은 사람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선물이고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명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선택된 겨레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이므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복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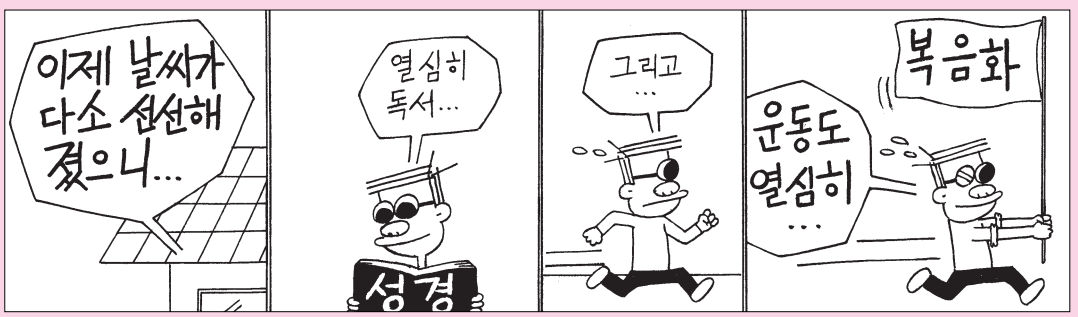
전교주일에 교회는 교황청 전교기구를 통하여 전교 지역의 복음화 활동을 위한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 후원은 교리교사와 신학생과 사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돕는 것이며, 특히 가난과 어린이 영양실조, 질병의 만연, 보건과 교육 문제가 심각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직접 기여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현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교와 평화와 연대를 이룩하는 일꾼이 되어 온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헤쳐 나가야 하며, 모든 이가 함께 걷는 그 여정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전교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에게 '가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열망과 기쁨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특히 복음을 위하여 크나큰 노고를 기울이는 분들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대구주보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바야흐로

박성규 엘리지오



오 늘 의 미 사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입당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파견성가
19 주를 따르리

영성의 향기

:: 내 인생은 우리의 것

지금이 마지막 날이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로마 14,12). 내가 한 일을 아뢸 때 나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과 남을 위해 쓴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넉넉히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1초도 아깝게 여겼다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재미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루카 17,33).

에페소서를 보면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유일무이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임무를 주셨고,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주셨으며,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두를 주시지 않고 이처럼 서로 다르게 마련하신 까닭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여 만나고 나눔으로써 완성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은 많은 사람과 나눌 때 진실로 내 것이 되는 선물입니다.

- 교구 사목국 권 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까

참된 제사란 하느님과 거룩한 친교를 이루게 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최고의 선에로 향해진 온갖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선 행위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참된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하는 자선 행위가 하느님과 관련되어 바쳐진다면 참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사제께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느님께 바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사가 곧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의 〈신국론〉에서 –

전주원(바오로) 신부님 금경축
일시: 10.29(토) 11:00, 계산주교좌성당

모임/행사

사회교리 공개 특강
주제: 현대 윤리가 가톨릭 사회교리에 던지는 도전
강사: 무잉가교구 교구장 요아킴 타혼데레예 주교
일시: 10.26(수) 19:30,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포콜라레 바자회
일시: 10.30(일) 11:00~17:00, 성김대건 기념관

베이스 구형광 묵상곡의 밤
일시: 10.24(월) 19:30, 신서성당
주최: 신서성당 사목평의회

제37회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주제: 희망의 100년, "새 출발"
일시: 11.1(화)~6(일), 오프닝: 11.1(화) 18:30
장소: 메트로 갤러리(지하철 용산역 내)
문의: (016)777-2757

원동수 스테인드글래스와 그림 작품전
일시: 10.22~11.19(매주 토요일) 10:00~16:00
장소: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681
네이버 카페: 스테인드글래스 산책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일시: 10.24(월) 11:00, 고산성당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문의: (051)782-0765

성소/피정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일일대피정
일시: 10.31(월) 10:00~17:00, 교구청교육원대강당
강사신부: 신원식 세례자요한(예수회)
문의: (010)5493-1819, 점심제공

조이플스테이 초대(31~33차)
주제: 기쁨의 샘물을 마셔라
일시: 11.5~6, 12~13, 19~20(토~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회비: 1만 원, 미사준비)
문의: (010)2649-2045

툿찡포교베네딕도수녀회 성소식별피정
일시: 11.5(토)~6(일), 대구 본원
문의: (010)8519-3431 / 313-3431

살레시오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11.5(토) 15:00~18:00
장소: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1층
대상: 중고등부~30세 이하 남성
문의: (010)3894-1332

교육/모집

제20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일시: 10.29(토) 15:00~21:00, 매주 토(6주간)
장소: 월성성당 내 3대리구청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능
문의: 641-5678, 신청비: 15만 원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11.6(일), 11(금)~13(일)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피정의 집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마감: 10.26(수)까지 (공문 참고)
문의: 250-3066 / (010)3823-9007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일시: 10.29(토) 10:00~12:30, 마감: 27(목)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참가비: 5천 원)
주제: 야곱이야기, 이스라엘이 되어라(배이사악 수녀)
11.26(토): 대림절 및 성탄시기 전례의미(최창덕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제18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일시: 12.31(토) 출발(6주), 410만 원
설명회: 11.12(토) 15:00, 656-6655(ARS4)
대상: 초4~중3(선착순: 40명)
*제11회 성인 해외봉사 및 어학연수 모집 중

2012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일시: 11.7(월)~11.11(금) 09:00~16:30
자격: 2005.1.1(토)~12.31(토)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방법: 아동 및 학부모 면접 후 컴퓨터 추첨
문의: 636-1346(http://dg-hyoseong.es.kr)

2012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석사, 박사, 석 · 박사통합과정)
접수기간: 10.31(월)~11.11(금)
문의: 850-3584, 3637 (http://www.cu.ac.kr)

2012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과정, 야간, 2년제)
경영, 디자인, 신학, 보건과학대학원
사회복지, 국제 · 다문화, 음악대학원
접수기간: 10.31(월)~11.11(금)
문의: 660-5512 (http://www.cu.ac.kr)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에니어그램(관계 속의 나)
일시: 11.9(수) 13:30~15:30
2012년 통합예술치료사 모집
일시: 2012.3.3(토) 13:30~16:00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제50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참가단 모집
일자: 2012.6.7(목)~9(화), 12박13일
장소: 아일랜드 더블린
주제: '성체성사: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이루는 친교'
주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02)460-7686

안내

성요셉재활원 조리원 모집
자격: 요리에 자신 있는 50세 이하
마감: 10.31(월)까지, 문의: (054)954-4176

위령의 날 군위묘원 버스운행 안내
일시: 11.2(수) 09:00, 교구청 내 대건출판사 앞 출발
운임: 왕복 1인당 1만 원 (선착순 마감)
예매기간: 10.25(화)~28(금), 준비물: 미사도구, 도시락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 불가)
*군위성당 자모회 국밥 판매합니다(5천원)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우영애(루시아), 박지향(안나), 박영표

미 사	일 시	장 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후원회미사	10월 24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군종후원회 미사	10월 2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바뇌의 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10월 27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공소후원회미사	10월 29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밝은눈안과
원장 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 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시해안 청정해역 명품 김
광천 이조맛김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 · 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이 경 숙(모니카) 011-504-5810
광천본사 : (041) 641-3838 대구지사 : (053) 255-3836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3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300m
TEL : 745-6633~4

곽앤신 연합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혁(루카) · 곽동석
코수술 · 여방접종 · 영유아검진전문병원
서부정류장, 옛 달성군청 옆 삼광빌딩 4층
☎ 638-7582 (치료빨리)
HOME PAGE : www.ksnose.com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상인행복을심는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 633-7504 / 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 · 구선주

허리아프고~ 다리아플때
척추 관절을 치료하는 ~
참조은병원
척추 관절을 위한 13명의 의료진 !
참조은병원에 多 모였습니다.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T.630-8000 송현역2번 출구